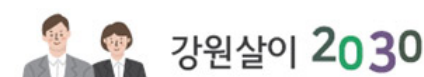


[강원살이 2030] 편안함과 설렘 일상과 새로운 세상 '경계'를 여행하는 도시기획자

✎ 김여진 | ✎ 승인 2021.11.09 | □ 9면

4. 국제 무대에서 로컬로 시선 옮긴 허은희
외교부 연구원 등 국제 경험 중 여행자 관점으로 본 고향 달라 보여
문화 자원·특징 관찰하던 '여행의 취향' 흥천 지역재생 아이디어로
지역 여행상품 개발·브랜드 창조... 세계 누비며 하고 싶던 일 실현



허은희(30) 흥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은 고향 취직 반 년 차 직장인이다.대학에서 정치외교,대학원에서 국제개발정책을 전공한 그가 선망해 온 꿈은 외교관.대학원 졸업 직후 외국살이의 꿈을 실행에 옮겼다.201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NGO봉사단을 통해 2차례 미얀마로 가서 1년 반 가량 머물며 그 나라와 사랑에 빠졌다.2019년 강원대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이어 지난 해 외교부 연구원으로도 일했다.진로의 방향은 모두 외교,국제개발에 맞춰져 있었다.연구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날 채비도 했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일정이 취소됐다.연구원 일을 마친 후에는 외교분야 시험도 생각했지만 결단은 쉽지 않았다.고민과 방황의 시기.원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만난 곳이 흥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다.국제개발과 군 단위 지역재생.언뜻 굉장한 차이가 나는 듯 하지만 들여다 보면 같은 선 위에 놓여있는 일이다.그 이유는 허 팀장과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설명된다.



▲ 허은희 씨.

허 팀장은 “대학 때부터 국제외교만큼 지역사회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해 오던 공부가 외교 쪽이다보니 지역을 진로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 4년간 매년 흥천에서 시간을 보내며 전환점을 맞았다”고 했다.그는 2018년 고교 졸업 후로는 처음 반년 가까이 고향에 머물며 학창시절에는 미처 못 본 풍경들과 마주했다.“어른이 되어서 바라본 고향은 달랐다.서울 갈 준비를 하다가도 고민에 빠졌다.흥천에 있고 싶기도,떠나고 싶기도 했다”고 했다.

흥천여중,여고를 거쳐 대학진학 할 때만 해도 귀향은 생각지도 않았다.은퇴 후에나 상상해볼만한 시나리오였다.해외 각국에 장기체류하며 살고 싶었다.그런데 2018년부터 매년 흥천에 여러 달씩 머무르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잠깐 쉬는 곳'이었던 고향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그는 “고향인데도 여행자처럼 지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장소,상인들을 알게 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 좋았다”며 “어떤 가치를 가진 도시인지 느꼈고,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다.타지에서 얻은 상처를 보듬고 마음정리를 하는 곳이 되어주기도 했다”고 머무르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 허은희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과 홍청망청 프로젝트를 함께한 김정주 씨.

사실 지역 청년들과의 활동은 센터 취업 훨씬 오래 전에 시작됐다.홍천에 머물 때마다 그는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다.그중 2019년 만든 것이 홍천글로벌네트워크다.홍천에도 꽤 많이 눈에 띄는 외국인들과의 교류 모임이다.지역 카페 등을 돌며 만나 정보와 취미를 나눴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최대 70여명까지 단체대화방에 모였다.외국인 교사,군인,복지상담사 등 직업과 나이,출신 지역 모두 다양했다.공통점은 홍천에 산다는 것 뿐.허 팀장은 "홍천에서 큰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친구들이 재미를 느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향에서는 단순히 중·고교 동창들과의 만남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소통을 주제로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있었다"고 했다.이어 "관계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데도 지역에서 해볼 생각은 못했었다.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추진한 것인데 외국인 친구들도 홍천생활의 질이 좋아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얀마 체류 경험을 살려 강원지역 미얀마 청년들과도 교류했다.공장에 다니는 미얀마 청년들과 한달에 한번씩 만나 격려하고 힘을 줬다.올해 미얀마 민주화 운동 때도 가만 있을 수 없었다.미얀마 민중가요를 불러 영상을 올리고,가사 해석 등을 공유하며 한국인의 연대를 보여줬다.응원 배지를 만들어 모금,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페이스북 페이지 'Korean Girl Loving Myanmar Songs(미얀마 노래를 사랑하는 한국소녀)'에 올린 미얀마 민중가요 'Kabar MaKyay Bu(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상은 무려 25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지난 해 펴낸 책 '나는 왜 미얀마와 사랑에 빠졌을까' 덕에 춘천과 원주 등 지역 독서모임이나 행사에 초청받거나,유튜브 촬영 등도 활발히 하고 있다.



▲ 허은희 씨가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여러 친목 모임을 거쳐 최근 민간 주도의 청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지난 6월 결성해 활동한 청년모임 '홍청망청(홍천·청년·희망·청춘)'은 동아리 개념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다.멤버 김정주씨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팀명이다.목표는 홍천청년의 존재감 알리기.강원살이의 '나답게 실험실' 공모를 따내기 위해 고향친구를 시작으로 홍천청년네트워크 오픈톡,SNS 등을 통해 사진,영상,그래픽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멤버를 모았다.허 팀장은 "홍천에는 청년의

시각으로 본 스토리가 너무 없다.젊은 세대도 지역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지역에 살며 포착한 풍경과 순간을 책으로 만들어 지역과 공유하고,작은 사진전도 열었다.해당 사업 지원은 끝났지만 '홍천청년네트워크'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허 팀장은 “누구든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정보가 필요할 때 우리를 먼저 찾게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사업을 통해 만난 다른 지역 청년팀들의 활동에서 여러 아이디어도 얻었다.멤버들의 활동도 활발하다.김정주씨는 최근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마침 이날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김씨는 지속가능한 여행에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다.

허 팀장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적 삶이 주는 편안함과 여행이 선사하는 새로운 세계의 설렘,그 경계를 몸으로 느끼면서다.미얀마에 있을 때도 마을의 일상,커뮤니티가 눈길을 끌었다고 했다.그는 “지역의 문화나 자원,특징 관찰을 좋아했다.지역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일이 멋있어 보였다”고 말했다.그래서인지 그가 풀어내는 미얀마에서의 여행 경험은 모두 강원도,홍천 지역 재생 아이디어로 연결됐다.홍천과 비슷한 느낌의 동네들이 많았는데,가는 곳마다 규모가 작아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점이 부러웠다고 한다.그는 “중국 국경과 접한 산 지역에서 1박2일 트레킹하면서 논두렁과 기차길 등을 걷는데 기후나 풍경,농작물 모두 홍천의 논밭과 비슷했다.홍천과 결연하면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런 경험 과정을 거쳐 허씨는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드디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일'을 맡았다.동아리나 친목 모임 리더가 아닌 '직업 직장인'으로서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했다.메인사업을 관리하면서 지역여행 주제의 사업도 한다고 했다.여행 플랫폼을 만들어 공유하고 주민들의 관련 상품 개발,지역브랜드를 만드는 일이다.미얀마에서 구상했다는 일들과 바로 이어진다.

허 팀장이 내세운 일상의 편안함과 여행의 설렘, 그 경계 어디쯤 홍청망청도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로 홍천의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정리하며 한 마디 했다.“고향에 오면서 꿈과 현실이 멀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지금 보니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허 팀장이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얘기하다 보니 정말 그렇네요?” 김여진·한승미



김여진 beatle@kado.net